

지역 소식통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9월 전면 무료 개방

완주군이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의 전면 무료개방을 추진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기간 주차장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형 3000원, 중형 2000원, 소형 1000원의 시설사용료(주차요금)를 징수해 왔다.

전국 도립공원 29곳 중 주차료를 받는 곳은 경북 문경새재, 전남 천관산, 전북 대둔산 3곳 뿐이었고, 2020년 7월 13일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대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8월 내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시행은 도립공원 탐방객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광활면, 장마철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김제시 광활면(면장 정우근)은 장마철을 맞이하여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도로상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변 잡초와 나무를 제거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활면으로 진입하는 성덕면 경계에서부터 진봉면 경계에 이르는 구도로 구간 12km와 옥포리 회림마을에서부터 은파리 동부보전건조소에 이르는 2km 신도로의 도로변 제초 작업으로 장마철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우근 광활면장은 "장마철 도로변 제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변 잡초와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대상'

올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7년 연속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 수상 영예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2020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7년 연속 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관광 ▲경제 ▲예술/전통 4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이번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대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외부상인이 없는 순수 주민참여형 축제로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의 주인공인 주민(마을)공동체 중심의 콘텐츠로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아쟁의 떡거리와 놀거리, 불거리 오감을 자극하는 축제다"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만의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 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 사회 확산 방지 및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월 말 개최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허전 부시장, 투자선도지구 세부사항 협의위한 국토부 방문

김제시, 백구특장차 투자선도지구 특장기계산업의 메카로 조성 계획

허전 김제시 부시장은 21일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공모 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를 방문했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주관인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과 조세특례, 각종 인허가 혜택 등 특장기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의 내용은 특장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백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지역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이 주요사업이다.

또한 지역상생 거점단지에 일지리연계형 지원주택(100세대) 설립을 위하여 김제시와 LH가 공동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23일 최종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백구면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LH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허전부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김제시 핵심전략산업인 특장기



계산업 발전과 지역상생 거점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아울러 이석훈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특장차산업의 선두주자인 김제시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특장기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특장기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 복지기동대, 무더위 대비 노후방충망 교체

김제시 부량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철)는 지난 21일 여름철 모기,파리 등 유해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독거노인 6가구에 대해 방충망 교체 재능봉사를 실시했다.

부량면 복지기동대는 12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1~2회 독거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을 파악하여 전등 교체, 방충망교체, 도배장판교체 등 소규모 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원들은 사전에 발굴한 취약계층의 낡고 파손된 방충망을 수리하여 각 가정에 재부착해드리고 멀어서 자주 못오는 자녀를 대신해 집안 불편



사항도 점검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신활력추진단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W푸드아카데미'의 기본 교육 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W푸드아카데미' 기본 교육 수료식

다양한 농촌 신활력 사례 강의... 이수자 24명 배출

완주신활력추진단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W푸드아카데미'의 기본 교육 과정 수료식이 진행됐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W푸드아카데미 기본과정은 지역의 생산 농가, 사회적경제조직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완주신활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푸드플랜, 푸드테라피, 6차산업, 미래식품, 치유농업 등 다양한 농촌의 신활력 사례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이뤄졌다.

주민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일과가 끝난 뒤 야간 시간을 활용해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참여자 80%이상의 이수자 2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이달 31일부터 8월 1일

까지 조직화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생산농가는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 심화 교육이 마련돼 있어 수료 이후가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형 신활력사업이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HMR, 치유 농업 등 완주군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기본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조직화교육, 전문교육 등 3단계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민간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사업주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양운엽 경제복지국장, 주요 사업장 방문

김제시 양운엽 경제복지국장이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조성현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행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9월 준공을 예정으로 조성 중인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현안업무 행기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는 청년들의 열정을 담아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신중동 494-31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15㎡ 규모로 조성 추진 중으로, 1층은 청년들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으로서 취?창업 정보 교류 및 교육,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2층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아이디어 구상, 창업 아이템 홍보 준비를 위한 회의실과 스튜디오 등을 통해 원스톱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양운엽 국장은 "김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청년공감 정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많은 변화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